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송미경 박현진[†] 김은영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자녀 가출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 가출 후 부모의 반응, 자녀 복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자녀 복귀 후 부모의 반응, 자녀 재가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가출과 복귀 과정에서 겪었던 부모의 경험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출경험이 있는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상담 중이거나 상담을 종결한 부모 11명을 인터뷰하였으며 합의에 의한 질적연구방법(CQR)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출직전 자녀와의 관계', '가출 직전의 자녀의 모습', '자녀 가출 이유', '자녀 가출 후 부모의 반응', '자녀 복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자녀복귀 후 부모의 반응', '자녀 재가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 7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가출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자녀의 재가출을 방지하는 데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주요어: 가출청소년, 가출청소년 부모, 합의에 의한 질적분석(CQR), 질적연구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1)의 위기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현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

Tel: 02-2250-3172, E-mail : monicaphj@kyci.or.kr

가출은 청소년 위기 문제 중 심각성이 날로 중해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가출 이후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심리적 위험이 크고, 학업중단 및 각종 범죄와 관련되어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부작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가출은 가출 그 자체가 심각한 비행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개인·가정·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윤희, 2011; 백혜정, 방은령, 2009). 예를 들어, 매체를 통해 수시로 듣게 되는 가출관련 문제들로, 절도, 생활비를 벌기 위한 성매매, 폭력, 약물남용, 자살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 쉽게 범죄상황에 놓일 수 있고, 장기간 가출로 인해 학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연구들(남미애, 홍봉선, 2009; 민가영, 2009; 성운숙, 박병식, 2009; 이춘화, 조아미, 2005)에서 청소년의 성매매에 선행하는 문제행동 경험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출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가출이 장기적인 경우, 청소년들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힘겹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성매매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아동·청소년 가출실태조사(백혜정, 방은령, 2009)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약 41%가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0)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5,225명의 학생 중 11.6%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있는 위기청소년 1,615명의 청소년 중 72.6%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 일 년 간 가출 경험률은 일반청소년은 42.5%, 위기청소년은 61.9%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싶은 이유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싫어서’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에 대한 부모님의 간섭이 심해서(35.4%),’ ‘공부가 부담되어서(33.8%)’ 순으로 나타났다(백혜정, 2009). 또 다른 연구보고서(여성가족부, 2010)에서는 일반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갈등’이 49.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위기청소년의 경우 ‘놀고 싶어서’가 4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하여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귀가를 거부한 청소년들의 응답 중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다시 겪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용교, 2006). 이러한 결과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모나 가족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가족·부모관련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 고찰은 필요하며, 빈번하게 거론되는 선행연구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부모 간 애착은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가출발생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김동기, 홍세희; 2007)에서 부모와의 애착 결핍이 가출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신현 등(2010)은 청소년가출의 원인이 청소년기 초기, 중기, 후기별로 청소년 가출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가

족부모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한 결과, 청소년 초기와 중기까지는 가족부모 요인이 비행친구변인보다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더 잘 설명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간 유대가 약할수록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선, 황성현, 2010).

둘째,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청소년의 가출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이다. 가족성원 간의 낮은 적응성은 가출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가족적응성이 낮은 청소년 집단이 가출충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수경, 1991; 남영옥, 1998). 또한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가출을 더 많이 하며(전귀연, 배문조, 2001), 지나치게 엄격한 가족관계나 지나치게 통제적인 가족환경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무기력함이나 무능함을 느끼게 만들어 가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olk & Brandon, 1977). 가족응집력이 낮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갈등 시에 갈등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며, 나중에 또래나 다른 비행집단에 속함으로써 가족에서 얻지 못한 정서적 유대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배문조, 전귀연, 2002),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을수록 가출충동을 더 느꼈다(이민주, 2002).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가출과 관련이 깊다. 가출 청소년은 비가출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 통제적인 훈육, 일관성이 없는 훈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Arulanandam, 1980), 비가출집단, 일회가출집단, 상습성가출집단 비교 연구(전귀연, 배문조, 2001)에서는 비가출 집단에 비해 일회가출집단과 상습성가출집단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과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성취지향적이지 않은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출을 유발시킬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혜경, 안옥희, 2001).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가출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윤희, 이상균, 2010),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아버지가 권위주의형인 경우와 어머니가 허용형인 경우 청소년이 가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강소라, 2001), Matchinda(1999)는 거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환경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경제력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가출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넷째,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한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서찬란(2005)은 가출청소년 가족의 의사소통은 폐쇄적이고 일방향이어서 청소년의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강소라, 2001)에서 부모의 의사소통 특징으로, 부모가 자녀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면서 폭언을 자주 하는 경우 가출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자료를 통해 가출과 부모의 의사소통을 조사한 연구(주동범, 임성택, 2009)에서는 부모와의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청소년의 가출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가출횟수와 가출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기미, 2010),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문제행동 개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철, 2010).

다섯째, 부모의 학대, 방임은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 전귀연과 배문조(2001)의 연구에 따르면, 상습성 가출집단이 비가출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성학대 모두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와 관련된 특성을 조사한 결과(Kurtz, Kurtz & Jarvis, 1991), 가출청소년들의 1/3이상의 4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청소년 조사대상의 81%가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받았고, 이들 중 절반가량이 거의 매일 신체적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Welsh, Archambaut, Janus, & Brown, 1995). 유성경(2000)은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전국가출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가출 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대경험이라고 하였다(조학래, 2004). 부모학대가 심할수록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고(박성진, 황성현, 2010; 조윤주, 강란혜, 2010), 가출청소년이 비가출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학대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은민, 2009).

여섯째, 부부갈등이나 부모와의 갈등은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 최초 가출 발생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이혼, 부의 신체적 학대 및 부모애착을 꼽았으며(홍세희, 김동기, 2007), 컴퓨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가출동기 중에 부모나 가족의 폭행 및 폭언, 부모나 형제와의 갈등이 50.1%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윤현영, 강진구, 2005). 또한 주된 가정요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부부갈등이며(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부부폭력이 있는 가정에 자녀폭력이 공존하여 가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소라, 2001).

일곱째, 가족구조는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 Roberts(1987)는 가출청소년의 거의 50%가 결손가정이나 재구성된 가정 출신인데 반해 비가출 청소년의 5명중 1명 정도만이 결손가정출신이라고 보고하였고, 구자천(2009)은 가출청소년의 가족유형 중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높음을 보고하면서 이는 빈곤문제와 연결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시, 단기, 중장기 컴퓨터 입소 청소년 가족구조 비교(국가청소년위원회, 2007)에서 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친부모가족의 비율은 낮아지고 한부모가족, 혼합가정, 시설청소년, 위탁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가출청소년의 경우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윤희, 이상균, 2010). 열악한 가족구조는 가족의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은 또한 청소년 가출과 관련이 있다(Andres-Lemay, Jamieson, & MacMillan, 2005). 박영호와 김태익(2002)은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아지고 실제 가출을 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으며, 구자천(2009)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출유발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가출 원인 중 부모 및 가족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출 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적절한 개입에 따라 청소년 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하겠다. 부모는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청소년에게 제공해주는 중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가출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어려움과 변화, 가족관계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어 가출 청소년 부모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경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비록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족·부모관련 환경이 역기능

적인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귀가를 설득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서적 표현이 가능하다면 가출한 청소년의 귀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김은영, 송민경, 2009; 방은령, 2003; 이현지, 2005). 또한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한상철, 2010)에서도 일반 청소년의 경우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을 조절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 적극적인 대처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여부를 판별해 주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사회적 지지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을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가출상담에서 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은 대부분 자녀의 가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이 자녀와 재결합하는데 유용하다(Rohr & James, 1994; 김태한, 2011 재인용).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가출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가출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 중인 부모의 경험을 부모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김태한(2011)은 피학대가출아동의 모자상담에 대한 단일사례연구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내면에 있는 공통의 열망을 끌어내어 일치시키는 것과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하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선미(2004)는 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당사자들의 보고나 해석을 통해 자녀양육과 교육행위가 전업주부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전업주부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영역으로서 모성이 가지는 의미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사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양적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기 어려운 경험세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일반화를 위한 양적연구에 대해 보다 많은 변수들을 추가할 수 있는 탐색적 성격도 가지는 질적연구가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이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듯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과중한 역할수행 부담이 감소되고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때, 부모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박현숙, 구현영, 2010). 최근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슈가 보고되고 있는데, 부모효능감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박현숙, 구현영, 2010 재인용). 부모효능감은 부모역할에서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므로,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도록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 수행을 돕고 나아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Dorsey, Klein, & Forehand, 1999; 박현숙, 구현영 2010 재인용).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을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유정이, 2008),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감’(임순선, 한상철, 2011)이라 정의한다면, 가출 청소년의 부모들은 부모효능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인 장기적 관계(Lollis & Kuczynski, 1997)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방식, 가족구조 등을 포함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가출 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출 청소년 부모의 심리적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가출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가출 청소년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의 가출 이전부터 자녀 가출 후, 자녀 복귀 후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조망하여 청소년 가출예방개입과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의 확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경험 청소년 부모들은 자녀의 가출 이전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며 평가하는가?

둘째, 가출경험 청소년 부모들은 자녀의 가출 후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며 평가하는가?

셋째, 가출경험 청소년 부모들은 자녀의 복귀 후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며 평가하는가?

방 법

자료분석 방법

가출경험이 있는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상담 중이거나 상담을 종결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의 가출로 인해 받은 영향, 가출 시 대처행동, 부모의 대처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 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CQR)방법을 사용하였다. 합의적 질적 분석은 연구대상의 경험을 범주화하고 그 경험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가 합의팀을 이루어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감수자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1년 3월~4월 전국 시도·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가출경험이 있는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상담 중이거나 상담을 종결한 부모들로서, 지역센터의 현장전문가들에게서 추천을 받았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부모들은 총 11명으로, 연령대는 39세~50세였

으며, 성별 구성은 여성이 10명, 남성이 1명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참여자 특성	성별	여자	10	
		남자	1	
	거주지	대도시	5	
		중소도시	4	
		읍면지역	2	
	연령	30대(30~39)	2	
		40대(40~49)	8	
		50대(50~59)	1	
	가정형태	양친 가정	7	
		한부모 가정	4	
가출자녀의 특성	성별	여자	5	
		남자	6	
	첫 가출 시기	초등학교 1~3학년	2	
		중학교	1학년	1
			2학년	5
			3학년	1
		고등학교 1학년	2	
	전체	11		

분석팀

분석팀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합의팀과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합의팀은 상담심리전문가이며 상담심리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상담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상담관련 전공 박사수료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합의팀 구성원 3명 모두 본 연구 이전에 여러 번의 합의적 질적 분석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1명은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 연구에도 참여하였다. 합의팀의 평균 연령은 45.3세이며, 합의팀 전원이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절차를 익혔다. 감수자는 상담심리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상담심리전문가로서 CQR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학술지에 발표를 한 경험이 있는 1인으로서 영역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도구

연구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사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팀의 합의를 거쳐 <표 2>와 같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질문 내용

주제	질문내용
I. 자녀 가출 전	- 가출직전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가출 직전의 자녀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II. 자녀 가출 후	- 자녀의 가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자녀가출 후 부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인지, 정서, 행동) - 자녀가출 후 주변가족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자녀 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III. 자녀 복귀 후	- 자녀복귀 후 부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인지, 정서, 행동) - 자녀의 재가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절차

참가자 선정과 면접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가출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지역상담센터의 현장실무자들에게 의뢰하여 참가자들을 추천 받았다. 이 중 최종적으로 면접에 동의한 부모들 11명이 대상자가 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녹음에 대한 내용을 동의를 받았고, 면접 후 소정의 답례품(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영역과 핵심개념 코딩

합의팀은 3사례의 축어록을 모두 읽고 각자 영역을 만들고, 이후 전원이 모두 모여 합의과정을 거쳐 영역을 결정하였다. 이후 나머지 8사례를 각자 읽고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 영역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합의과정을 통해 ‘가출직전 자녀와의 관계’, ‘가출 직전의 자녀의 모습’, ‘자녀 가출 이유’, ‘자녀가출 후 부모의 반응’, ‘자녀가출 후 주변 가족의 반응’, ‘자녀 복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자녀복귀 후 부모의 반응’, ‘자녀 재가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 8개 영역이 만들어졌는데, ‘자녀가출 후 주변 가족의 반응’은 부모의 경험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거리가 있어 영역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최종 영역이 7개로 선정되었다.

핵심개념

합의팀은 모든 사례를 영역별로 정리한 후,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핵심개념을 구성하였다. 이때 핵심개념은 가능한 연구진의 추론을 배제하고 참여자들의 단어로 나타내도록 노력하였다.

영역과 핵심개념의 감수 및 감수 내용 합의

11사례의 영역과 핵심개념은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작성된 축어록과 합의팀의 영역과 핵심개념을 확인하는데, 이때 감수자는 원 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핵심개념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감수자가 지적한 내용은 합의팀의 합의를 거쳐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수정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였다.

교차분석과 교차분석 감수

11개의 사례 중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9개 사례의 핵심개념을 검토하여 범주를 만들었다. 이러한 교차분석 자료를 다시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았다. 이때 감수자는 각 영역의 핵심개념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핵심개념들이 적절하게 범주화 되었는지 검토해 주었다. 합의팀은 감수자가 지적한 내용과 의견은 합의팀의 토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하였다. 첫 번째 합의 과정을 통해 8개의 영역이 만들어졌으나 교차분석과 감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개의 영역으로 결정되었다.

안정성 점검

교차분석을 마치고 교차분석에서 제외되었던 2개의 사례를 추가하여 범주의 빈도변화나 새로운 범주나 영역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 결과에 대한 안정성이 점검되었다.

결 과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결과는 ‘가출직전 자녀와의 관계’, ‘가출 직전의 자녀의 모습’, ‘자녀 가출 이유’, ‘자녀가출 후 부모의 반응’, ‘자녀 복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자녀복귀 후 부모의 반응’, ‘자녀 재가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의 7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그에 따른 하위범주는 48개로 나타났다. 표 3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결과

영역	범주	사례 빈도
가출직전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야단을 치거나 때림	전형적(9)
	자녀에게 잔소리나 지시하는 말을 많이 함	전형적(7)
	자녀와 특별한 문제없이 지냄	드문(4)
	자녀와 대화가 없고 무관심함	드문(5)
가출 직전의 자녀의 모습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교칙을 어김	전형적(8)
	노는 친구와 어울리고 귀가시간이 늦음	일반적(11)
	비행을 함	전형적(7)
	공부, 진로에 대해 압박을 받음	전형적(10)
	말이 없고 걱정이 많음	드문(5)
	거짓말을 하고 행동이 과격함	전형적(7)
자녀 가출 이유	친구관계의 어려움	전형적(7)
	부모를 무서워하고 반항을 함	전형적(7)
	친구들과 놀고 싶음	드문(5)
	공부하기 싫고 학교가 싫음	전형적(7)
자녀가출 후 부모의 반응	부모가 알아차리기 전에 습관적으로 나감	드문(5)
	가출한 원인을 생각해 봄	전형적(7)
	나쁜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함	드문(3)
	참고 기다려보자고 생각함	드문(5)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함	드문(3)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드문(4)
	놀람, 걱정, 불안	전형적(9)
	분하고 화가 남	전형적(8)
	답답함, 막막함, 앞이 캄캄함	전형적(10)
	자책과 회한	전형적(8)
미움과 배신감	전형적(7)	
자녀 복귀를 위한 부모의 노력	병이 남	드문(5)
	직접 찾으러 다님	드문(5)
	휴대폰 위치 추적, 교통카드 검색	드문(4)
	친구들에게 연락	드문(5)
	가출 신고	전형적(9)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함	전형적(8)
	자녀에게 문자 등 계속 연락을 함	전형적(7)
자녀복귀 후 부모의 반응	들어오라고 자녀를 달랠	드문(4)
	마음을 다스리고 반성함	전형적(7)
	말을 아끼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 줌	전형적(8)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영역	범주	사례 빈도
자녀 재가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안심이 되고 고마움	드문(4)
	화가 나고 때림	드문(4)
	나가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 훈계하거나 달랠	전형적(8)
	학교를 다니라고 함	드문(3)
	자녀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에 데리고 감	드문(3)
	감정절제와 마음 다스리기	전형적(8)
	자녀의 욕구 고려	전형적(8)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려는 노력	드문(6)
	대화 방법이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	전형적(10)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행동	드문(4)
도움을 활용 함	도움을 활용 함	전형적(7)
	자녀의 시간을 관리	드문(5)
	믿어주기	드문(5)

*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general), 7사례~11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 3사례~6 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variant)

가출직전 자녀와의 관계

가출직전 자녀와의 관계는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야단을 치거나 때림’(전형적), ‘자녀에게 잔소리나 지시하는 말을 많이 함’(전형적), ‘자녀와 특별한 문제없이 지냄’(드문), ‘자녀와 대화가 없고 무관심 함’(드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동에 야단을 치거나 때림

참여자들은 자녀의 가출직전 자녀의 좋지 않는 행동에 대해 혼을 많이 내고 야단을 치거나 때리는 등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는 이제 좀 많이 혼내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렇게 자랐어요. 아빠가 야단이면 정말 좋은 식으로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욕, 욕시작 하고 또 성질나면 때리면서 하니까.” (사례 7)

“어릴 때는 때렸지요, 몽둥이로 막...” (사례 5)

자녀에게 잔소리나 지시하는 말을 많이 함

참여자들은 어긋나는 자녀의 행동을 보고 자녀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거나 자녀의 행동을 일일이 체크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항상 들어오는 시간 체크하고, 전화로.. 또 제가 좀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한 거야,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례 2)

“00가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를, 항상 일방적인 내 이야기 밖에 안 되니깐...” (사례 11)

자녀와 특별한 문제없이 지냄

참여자들은 가출 직전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였고 평상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관계로 지각하였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집 나가기 전 날도 부침개가 먹고 싶다 그래서, 무슨 부침개가 먹고 싶냐니까 호박전도 먹고, 싶고 김치전도 먹고 싶고 그래서 그날 세 가지 부침개를 해줬어요” (사례 3)

자녀와 대화가 없고 무관심 함

참여자들은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었고, 자녀와도 대화를 잘 하지 않았으며 자녀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무관심한 편이었다.

“제가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못 챙기다 보니까 엄마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된다 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잘 들어주는 편도 아니고 하고 그래서.” (사례 10)

가출직전의 자녀의 모습

가출직전 자녀의 모습은 7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교칙을 어김’(전형적), ‘노는 친구와 어울리고 귀가시간이 늦음’(일반적), ‘비행을 함’(전형적), ‘공부, 진로에 대해 압박을 받음’(전형적), ‘말이 없고 걱정이 많음’(드문), ‘거짓말을 하고 행동이 과격함’(전형적), ‘친구관계의 어려움’(전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교칙을 어김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가출 직전의 자녀 모습은 자녀가 학교를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고지각이 잦았으며, 흡연 등으로 교칙을 어겨 학교로부터 연락을 자주 받았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여간, 지각이 잦아요, 땡땡이 깎어요, 그리고 심각하게는 뭐, 흡연하다 걸렸어요..” (사례 2)

“자꾸 설득하고 학교를 계속 데려다주고 그랬죠. 그런데 데려다줘서 교문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또 어느 날은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안왔다는 거예요.” (사례 4)

노는 친구와 어울리고 귀가시간이 늦음

가출 직전에 자녀는 가출경험이 많은 친구나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귀가시간이 늦고 연락 없이 외박을 하고, 사이버 상에서 친구관계를 맺어 같이 놀았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지 모른다고, 중2때 컴퓨터하고 하는게 뭐 싸이나 네이트온 같은 거 접속하면서 그러면서 친구를 알았던 것 같아요. 학교 친구가 아니고 이제 뭐 친구 맺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몇 번 왜 만나다 보니 우리 만날까? 이러면서...” (사례 8)

“외박을 거진 안 하고 보통 밤에 나가서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긴 하는데...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두 번 정도는 뭐 밤에 잠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기는 하죠.” (사례 11)

비행을 함

가출직전 자녀는 담배를 피우고 화장도 하며, 늦게까지 노래방이나 PC방, 당구장을 다니거나, 심지어 부모의 가방에서 카드나 돈을 훔치는 비행행동을 일삼았다.

“중3부터 담배피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화장도 무지 전하게 하고...” (사례 2)

“나중에는 엄마 지갑에 이제 그거를 손을 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카드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어느 날 카드가 없어 그런데 카드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해보니까 카드에서 돈이 인출이 된 거야” (사례 6)

공부, 진로에 대해 압박을 받음

가출직전 자녀는 공부를 해야한다고 부모의 이야기에 압박감을 느꼈으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할지 고민에 쌓였다.

“솔직히 애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지만 부모입장에서는 원서 쓰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어떻게 보면 부모입장에서 볼때는 요구하는 거지. 애를 압박하는 거지.” (사례 1)

“이쯤 되면 공부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했더니..” (사례 8)

말이 없고 걱정이 많음

자녀는 가출직전에 말이 없어지고 걱정이 많고 소심한 모습을 보였다.

“가출하기 전의 정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말이 없어져요” (사례 3)

거짓말을 하고 행동이 과격함

가출직전에 자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언어도 너무 진짜 속어만 쓰고, 욕 진짜 살다 살다 그런 욕 들었던 적 처음이에요. 아빠한테도 그렇고...” (사례 4)

친구관계의 어려움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였다.

“등 뒤쪽으로 멍 시퍼렇게 들었더라고요. 아주 괴명어. 그래서 너 이거 왜 그러냐 그래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냥 애들한테 맞았다고..” (사례 4)

“어렸을 때도 가만히 보면 애들하고 잘 섞이질 못했고...” (사례 2)

자녀 가출 이유

자녀 가출 이유는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부모를 무서워하고 반항을 함’(전형적), ‘친구들과 놀고 싶음’(드문), ‘공부하기 싫고 학교가 싫음’(전형적), ‘부모가 알아차리기 전에 습관적으로 나감’(드문)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무서워하고 반항을 함

자녀는 자신에게 혼을 내는 부모를 무서워하고 자신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자신은 왜 없냐고 원망하였다.

“학교를 끝나고 늦게 애들하고 놀다가 시간이 늦어졌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못들어오는거예요. 처음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례 7)

“다른 아이들은 아빠한테 용돈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왜 나는 아빠가 없어서 그런 얘기조차 못하고 왜 나는 그런 사랑 못 받고 사냐고...” (사례 10)

친구들과 놀고 싶음

자녀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고 싶은데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놀고 싶은 마음에 가출을 하였다.

“친구들과 점질방에도 가있고 여관도 방도 그럴듯한 데 얻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제대로 했고.. 00에게는 재미도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 6)

공부하기 싫고 학교가 싫음

자녀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시험 때가 되면 시험을 치기 싫어하고, 공부가 싫어 가출을 감행하였다.

“조금만 내가 뭐 공부하기 싫다, 이런 경우에는 나갔다..시험 때 되면 시험치기 싫어 또 학교 안가고..그러면 못 들어오는거죠, 집에” (사례 5)

“애가 갑자기 원서를 쓰기 전에 일주일전에 원서를 써야하는데 나가버리니까는...” (사례 1)

부모가 알아차리기 전에 습관적으로 나감

참여자들은 자녀가 왜 집을 나가며 언제 집을 나갈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 지내다가 그냥 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경험하였다.

“씩 웃으면서 ‘아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게 가출입니다. 환장합니다. 모릅니다. 언제 나가려는지...” (사례 5)

자녀 가출 후 부모의 반응

자녀 가출 후 부모의 반응은 11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가출한 원인을 생각해 봄’(전형적), ‘나쁜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함’(드문), ‘참고 기다려보자고 생각함’(드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함’(드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드문), ‘놀람, 걱정, 불안’(전형적), ‘분하고 화가 남’(전형적), ‘답답함, 막막함, 앞이 캄캄함’(전형적), ‘자책과 회한’(전형적), ‘미움과 배신감’(전형적), ‘병이 남’(드문)으로 나타났다.

가출한 원인을 생각해 봄

참여자들은 자녀가 가출하자 왜 자녀가 집을 나갔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는 크게 뭐 애를 왜 나갔을까 하고 생각했죠. 왜 나갔을까?” (사례 5)

“이제 이래서 그랬을까? 저게 그래서 그랬을까? 일단 정말 양육에 대해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커서 나타나지는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 8)

나쁜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함

참여자들은 자녀가 비록 집을 나갔을지라도 나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기를 바랬고 가출한 자녀의 상태가 나쁜 상황이 아니길 소망하였다.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서 인제 혹시 돈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않을까...” (사례 7)

참고 기다려보자고 생각함

참여자들은 자녀가 돈이 떨어지거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그 엄마들은 아이들이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아이들이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돈 떨어지면 들어온다. 그래서 돈 다 쓸 때까지 마냥 기다리자.”(사례 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함

참여자들은 자녀가 가출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자녀가 걱정되고 정말 힘든 마음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처음엔 차라리 이럴 바엔 죽자...” (사례 6)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참여자들은 자녀가 가출하자 어떻게 자녀를 찾고 돌아오게 해야 할 지 막막한 마음에 힘들어하였다.

“그냥 이럴 때 이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발등의 불이거든요.” (사례 8)

놀람, 걱정, 불안

참여자들은 자녀의 가출에 놀라고, 자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않았을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진정이 되지 않았다.

“되게 놀랐어요. 그때...제가 부들부들 손이 떨려요. 근데 정말 마음이 진정이 안되는거야 막. 애가 혼자 나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한거예요. 가출을 한 게 아니라 혹시 납치라도 당한 게 아닌가하고.” (사례 1)

“처음에는 뭐 진짜 뭐 집 나가고 가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사례 6)

분하고 화가 남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자녀가 가출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자녀가 집을 나가버린 것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매우 분하고 화가 났다.

“진짜 그런 환경에서 그랬다면 있을 수 있고 그렇구나 할 텐데, 너무 분한 거예요.” (사례 2)

“정말 이정도로 애가 엄마에 대해서 정말 눈곱만치도 없나 그런 생각에 나중에는 막 화가나가지고 애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화병이 나가지고...” (사례 8)

답답함, 막막함, 앞이 캄캄함

참여자들은 자녀가 가출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었다.

“이제 앞이 캄캄하죠 뭐... 앞이 캄캄하고, 맨날 울었죠. 맨날...” (사례 4)

자책과 회한

참여자들은 자녀가 가출한 것을 보고, 부모 잘못 만나서 자녀가 무슨 고생인가 싶고, 자녀에게 잘하지 못한 자신이 후회스럽고 미안하였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애한테 집착하고.. 원망스럽구, 후회가 들구...” (사례 2)

“부모 잘 만나서 뒷받침만 잘해주고 그랬으면 정말로 잘 자랐을 아인데 좀 너무 애가 안된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부모도 다 능력 없는 부모 만나서 이게 뭐 고생인가 싶고 저도 제 스스로 자책도 들고...” (사례 7)

미움과 배신감

참여자들은 가출한 자녀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밉고 죽이고 싶은 정도로 미운 마음도 들었다.

“사실은 처음, 진짜 성질 같아서 죽이고 싶죠” (사례 5)

병이 남

참여자들은 가출한 자녀에 대한 걱정과 애태움으로 병이 나 병원신세를 졌다.

“조금만 먹어도 소화도 안되고 그래요” (사례 4)

자녀 복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자녀 복귀를 위한 부모의 노력은 7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직접 찾으러 다님’(드문), ‘휴대폰 위치 추적, 교통카드 검색’(드문), ‘친구들에게 연락’(드문), ‘가출 신고’(전형적),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전형적), ‘자녀에게 문자 등 계속 연락을 함’(전형적), ‘들어오라고 자녀를

달램'(드문)으로 나타났다.

직접 찾으러 다님

참여자들은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해 자녀가 가 있을만한 곳을 직접 찾으러 다녔다.

“몇 번 아빠 데리구 피씨방이랑 동네 피씨방이랑 있을 만한 곳 다 찾았어요.” (사례 2)

휴대폰 위치 추적, 교통카드 검색

참여자들은 자녀를 찾기 위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본다든지, 교통카드를 검색해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위치추적이라도 그런 걸 해달라고 했는데...” (사례 4)

친구들에게 연락

참여자들은 자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자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애가 놀던 애들한테 전화해보고 그랬었는데...” (사례 1)

가출 신고

참여자들은 자녀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 가출 신고를 하였다.

“처음에 가출했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했죠.” (사례 4)

“처음에는 안 했죠 **에 가서 가출 신고를 했어요.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겁나고 혹시 인제 다른 나쁜 쪽으로 빠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거기 가서는 가출신고를 했어요.” (사례 6)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참여자들은 혼자 힘으로 자녀를 찾기 힘들어 아는 선생님이나 자녀 친구 부모 등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얻었다.

“부산 선생님 한 분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찾고 봐야해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애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례 2)

“학교 선생님하고는 지속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학교 선생님하고는 통화를 계속 하니깐..” (사례 5)

자녀에게 문자 등 계속 연락을 함

참여자들은 자녀와 지속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계속 하였고, 싸이월드와 같은 자녀가 소식을 남기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녀의 근황을 살폈다.

“수시로 문자 남기고 음성을 남기고..” (사례 1)

“상대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뒤지다 보면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사례 4)

들어오라고 자녀를 달래

참여자들은 가출한 자녀와 연락이 닿으면 어떻게 하든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어르고 달래면서 집으로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냥 들어와라, 아무 말 안할 테니까 들어와라 해가지고, 중 1학년 후반부터는 살살 달래가지고 집에 데려오고..” (사례 5)

“아빠가 지금 많이 너 얘기를 들어주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너 오늘은 꼭 오래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아빠가 너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다.” (사례 7)

자녀 복귀 후 부모의 반응

자녀 복귀 후 부모의 반응은 7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마음을 다스리고 반성함’(전형적), ‘말을 아끼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 줌’(일반적), ‘안심이 되고 고마움’(드문), ‘화가 나고 때림’(드문), ‘나가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 훈계하거나 달래’(전형적), ‘학교를 다니라고 함’(드문), ‘자녀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에 데리고 감’(드문)으로 나타났다.

마음을 다스리고 반성함

참여자들은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자 자녀가 왜 가출을 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나를 다스리려는.. 그러니까, 자위라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다행이다. 그걸로 하고..” (사례 2)

말을 아끼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줌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가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녀가 또 다시 가출할까 싶어 되도록 말을 아끼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네가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던가 하면 얘기를 해라.” (사례 6)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다가..” (사례 8)

안심이 되고 고마움

참여자들은 자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안심이 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온 것이 고마웠다.

“나중에는 인제 이해를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밖에 가서 아주 큰 문제없이 그렇게 갔다 온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그렇다. 그래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사례 6)

화가 나고 때림

참여자들 중에는 자녀가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면서도 자녀가 부모를 떠나 가출했던 것이 화가 나고 분해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때렸다.

“엄마 화난다 솔직히. 이렇게 하지마라. 니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좀 화를 냈었어요.” (사례 10)

나가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 훈계하거나 달랠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이제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좋지 않는 친구도 만나지 말라며 훈계하거나 자녀를 달랬다.

“첫 번째는 야단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래 그러지 마라, 놀고 싶으면 애길 해라하고 달랬어요.” (사례 3)

“친구를 항상 조심조심해서 잘 생각해서 잘 사귀어라. 항상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사례 8)

학교를 다니라고 함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학교를 다녀야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를 계속 이렇게 하면 졸업 못하니까, 내년에 또 다녀야 된다고 하고.. 학교는 무조건 가라고 하고...” (사례 5)

자녀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에 데리고 감

참여자들은 가출해서 돌아 온 자녀가 병이라도 언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병원에 데리고 갔다.

“재 밤에 잠도 안자고 돌아다니더니 혹시 병이 났나 싶어 가지고 정신과도 데리고 가보고...” (사례 11)

자녀 재가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자녀 재가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은 8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감정절제와 마음 다스리기’(전형적), ‘자녀의 욕구 고려’(전형적),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려는 노력’(드문), ‘대화방법이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전형적),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행동’(드문), ‘도움을 활용함’(전형적), ‘자녀의 시간을 관리’(드문), ‘믿어주기’(드문)로 나타났다.

감정절제와 마음 다스리기

참여자들은 자녀가 더 이상 가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나고 답답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렸다.

“제가 제 감정을 좀 삭이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 1)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시기다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다 이 시기만 잘 넘기면 해 뜰날 오겠지 좋은 날 오겠지 하고...” (사례 8)

자녀의 욕구 고려

참여자들은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놔두면서 자신의 생활을 자녀 중심의 생활로 변화시켰고, 자녀가 편하게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개 위주로 좀 많이 돌아갔었죠 생활이...” (사례 4)

“지금은 맞춰주려고 00가 그런 걸 원하니까 제가 맞춰주려고 제가 좀 하거든요.” (사례 6)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려는 노력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자주 연락을 하면서 자녀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자녀와 함께 해보려고 노력하였다.

“괜히 컴퓨터 할 때도 옆에서 괜히 서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고 그렇게 해요.” (사례 4)

대화 방법이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

참여자들은 이전의 자녀와의 대화방법에서 탈피하여 자녀에게 야단이나 잔소리보다는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노력하였고, 자녀에게 칭찬도 많이 해 주었다.

“다른 때 같은면 공부 해라해라 했을텐데 지금은 이제 벌써 말투가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I) 메시지로 바뀌었죠.” (사례 8)

“일단은 본인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례 11)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행동

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바둑이나 몇 판 둘까? 그러면서. 바둑을 그렇게 많이 두더라구요.” (사례 7)

도움을 활용 함

참여자들은 상담을 하거나 심리검사를 하는 등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여 자녀의 재가출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서 애를 데리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게 하고...” (사례 6)

자녀의 시간을 관리

참여자들은 자녀의 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학원시간이나 노는 시간 등을 관리하였다.

“네가 늦게 들어오면 내가 자다 말고 일어나야 되고 힘들다. **야. 내가 잠들기 전에 네가 왔으면 좋겠다.” (사례 11)

믿어주기

참여자들은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는 자녀의 약속을 믿어주었다.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믿어보는 거지요 뭐.” (사례 1)

그림 1은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가출직전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자녀와 대화 없이 무관심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특별한 문제없이 부모-자녀가 잘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의 가출직전 모습은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노는 친구와 늦게까지 어울리며,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의 가출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을 제재하는 부모가 무섭고, 공부와 학교가 싫었으며, 친구와 놀고 싶어서 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가출 한 후 부모는 자녀가 왜 가출을 했는지 생각해 보고 자녀가 돌아오길 참고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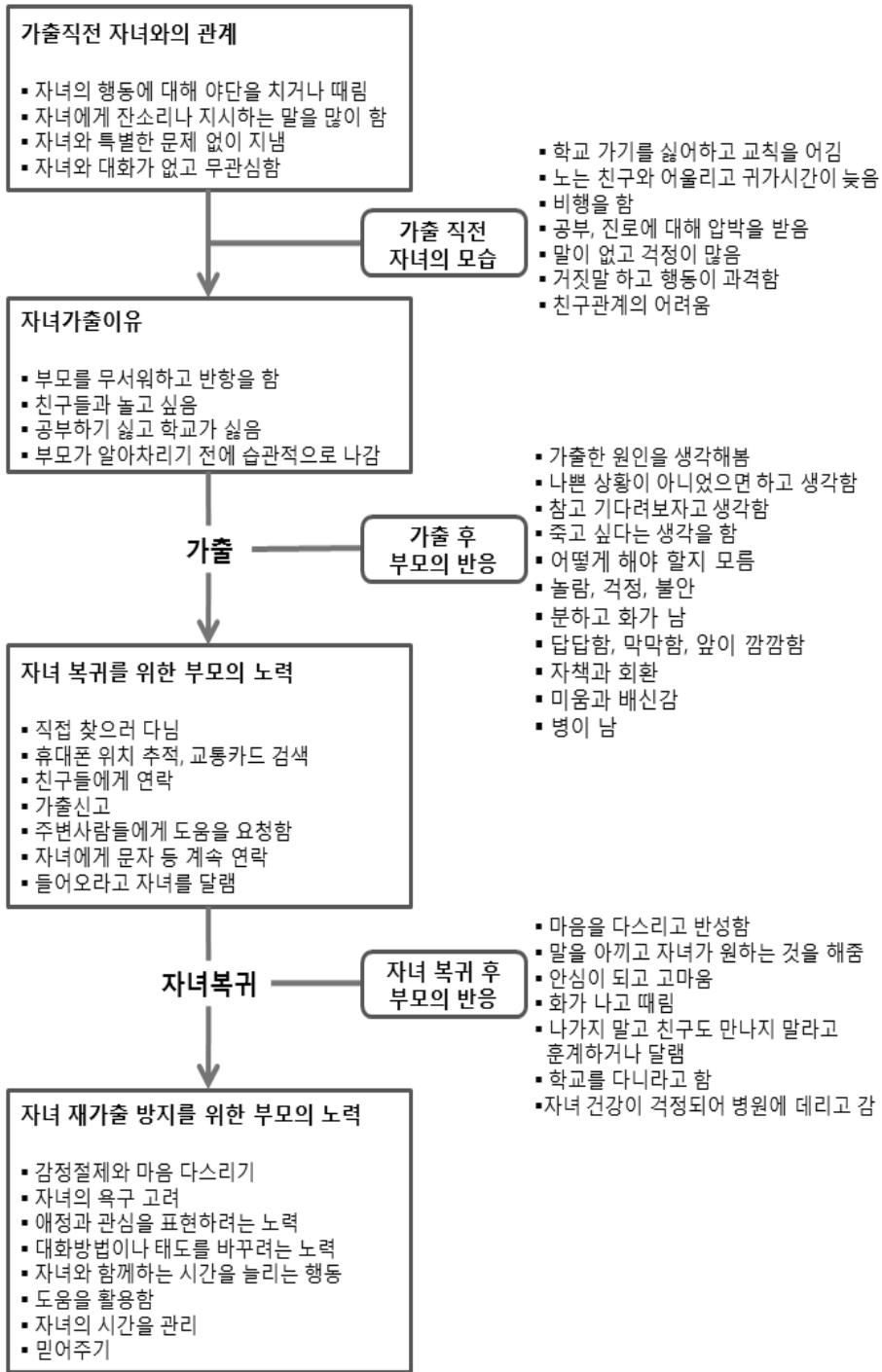


그림 1.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경로

한편으로 자녀가 가출한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 같아 후회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부모는 자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직접 찾으러 다니거나 자녀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는 안심이 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아끼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가출한 것에 화가 나 때리기도 하였다. 자녀가 더 이상 가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살피고 이전보다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출경험이 있는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상담 중이거나 상담을 종결한 부모 11명을 면접하여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출직전 자녀와의 관계’, ‘가출 직전의 자녀의 모습’, ‘자녀 가출 이유’, ‘자녀 가출 후 부모의 반응’, ‘자녀 복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자녀복귀 후 부모의 반응’, ‘자녀 재가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 7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전형적인 특징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한 후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자녀가 가출 전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엄격하고, 야단과 잔소리로 자녀와 갈등을 겪는 상황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부모의 모니터링 부족, 부모의 일방적 대화 방식, 자녀와의 대화 단절은 자녀의 가출, 비행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김선미, 2003; 김주형, 남정자, 전휘순, 1992; 배문조, 전귀연, 2002, 현은민, 2000; Branstetter, 2005, Hartos & Power, 2000). 자녀의 가출 이후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존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책과 후회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의 재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육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여러 사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녀의 가출을 조장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가 더 이상 가출을 하지 않도록 가출 문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대처방안 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출의 저연령화, 만성화, 비행화 문제를 고려할 때, 한번 가출한 청소년들은 다시 가출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 자녀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부모는 가출 신고를 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자녀와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취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녀 복귀 후 부모의 반응 또한 스스로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아끼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부모는 자녀가 가출한 이유를 파악하고 재가출 예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부적절한 대처는 자녀의 가출이 시작된 후 곧 재가출이 발생하고, 자녀의 학업 중단이나 폭력, 이웃집 절도 등의 위기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가출 초기에 재가

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자녀의 학교 적응 및 발달과업 성취를 조력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부모가 습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출 경험 자녀의 특성이나 요구를 고려한 대처 방법의 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출 전 자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노는 친구와 어울리며 말쑤에 휘말리는 자녀가 있는 반면, 자녀가 말이 없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으며, 공부나 진로에 대해 압박을 받거나 부모가 알아차리기 전에 가출해 버리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부모의 대처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자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증폭되며, 가출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출 이후 길거리 생활이나 비행또래와의 어울림 등을 통해 더욱 비행행동이 심해지고 범죄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 2010; Thaxton & Agnew, 2004). 따라서 가출 이후 증가되는 관련 문제에 대해 부모들이 예측하고 이에 적절하게 예방,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자녀와의 대화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며, 가출 징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출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선행연구(Rice, 199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비행이 아니더라도 친구관계의 어려움이나 학업 문제 등 다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더라도 도움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출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이 발생되는 위험요인 중 자녀의 특성이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부모의 민감함이 필요하겠다. 부모의 이러한 노력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누구보다 먼저 부모에게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가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부모의 반응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미움, 화, 배신감 뿐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출 후 자녀가 복귀한 상황에서도 언제 자녀가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말을 아끼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 주는 등 자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가출과 관련하여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며, 복귀한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에 반영되어 자녀의 복귀 후 적응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재가출 방지를 위해서 부모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대처방법의 습득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낙담하고 자책하는 부모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출은 기분전환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출 초기에는 분명한 이유에 의해 시작되었을지라도 장기화되면 어떤 스트레스를 접하던 가출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습관화 될 수 있다(백혜정, 황혜정, 2006). 면접참여자들은 자녀가 가출하게 되면 계속 찾고, 자녀의 입장에 서서 대화해보려고 노력하는 등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한 회의, 자기확신의 부족, 자책 등을 많이 보였다. 가출 경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받

복적으로 경험하기 쉬운데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이 감소될 수 있다. 면접사례에서처럼 이와 같은 어려움은 부모에게 극도의 심신의 피로와 무력감을 안기며, 결국 자녀를 포기하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내몰 수 있다. 따라서 가출 경험 자녀가 재가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부모가 효과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양육효능감을 회복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모-자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훈련이 필요하다. 복귀 후 재가출 방지를 위한 노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부모들이 스스로 터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납득한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며 일방적일 때 스트레스로 인한 가출이 증가되고(주동범, 임성택, 2009), 부정적 의사소통은 가출 횟수와 기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손기미, 2010),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문제행동 개입을 감소시키는(한상철, 2010) 한편, 부모와 자녀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여부를 판별해주는 등 주요 보호요인(배문조, 전귀연, 2002; 현은민, 2000; 한상철 2010)이기도 하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은 재가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부모가 자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자녀와의 갈등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재가출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부모들은 자신의 감정 절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보고하였다. 반면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때리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지 말 것을 훈계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 자녀 간 갈등은 대표적 가출 원인 및 가출 지속요인으로 나타나는 만큼(백혜정, 2009; 이용교, 2006; 전신현 외, 2010)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반복되는 갈등상황을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가출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가출 청소년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의 가출 이전부터 자녀 가출 후, 자녀 복귀 후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조망하여 청소년 가출예방개입과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의 확립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가출청소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가출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가출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 중인 부모의 경험을 부모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기존의 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한 연구와 차별성을 띠는 것은 양적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기 어려운 부모의 경험세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진행되는 양적연구에 대해 보다 많은 변수들을 추가할 수 있는 탐색적 성격을 띠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가출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관점에서 바라 본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자녀의 재가출을 방지하는 데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 가출과 반복적 가출의 차이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출시기, 반복 가출 여부 등에 따라 부모의 경험을 보다 세분하여 자녀의 가출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전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라 (2001). 가출청소년 가족의 가족구조와 기능에 대한 질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천 (2009). 가출청소년의 가출횟수와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일시쉼터(드림인센터) 및 일시보호소 이용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백서.
- 김경 (2010). 청소년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1-21.
- 김경희 (2002). 가출청소년의 성공적 귀가와 재가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기, 홍세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최초 가출 발생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에 대한 검증: 비연속 시간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18(3), 267-294.
- 김선미 (2003). 가족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2004). 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3(4), 1-17.
- 김은영, 송민경 (2009). 단기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귀가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청소년학연구, 16(1), 343-370.
- 김주형, 남정자, 전희순 (1992). 한국 청소년의 자살기도에 관한 역학적 연구. 보건사회논집, 12(1), 194-207.
- 김태한 (2011). 피학대 가출아동의 모자상담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15(2), 75-96.
- 남미애, 홍봉선 (2009). 성매매청소년 교육수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현황 및 사회적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2), 63-94.
- 남영옥 (1998).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생존전략적 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4(3), 222-255.
- 도수경 (1991).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경험 소녀간의 가족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가영 (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52, 73-202.
- 박영호, 김태익 (2002). 가출예측 척도에 의한 여중생들의 가출요인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0(2), 81-99.
- 박윤희 (2011). 장·단기 가출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희, 이상균 (2010). 청소년가출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리뷰, 15, 157-186.
- 박은민 (2009). 아동학대로 인한 가출 · 비행 청소년의 현상과 경찰의 조력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1), 316-324.
- 박정선, 황성현 (2010). 청소년 가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출충동 변인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0), 1-21.
- 박현숙, 구현영(2010).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9(4), 411-419.
- 방은령 (2003).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모색: 가출경험 대학생과 가출청소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문조, 전귀연 (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개인, 가족, 학교환경,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가정학회지, 40(1), 23-35.
- 백혜정 (2009).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비행 경험 관계에서의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37-56.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서찬란 (2005). 가족 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윤숙, 박병식 (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손기미 (2010).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0). 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출청소년 유형별 귀가지도 보고서.
- 여성가족부 (2010). 2009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 유성경 (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3), 81-106.
- 유정이 (2008).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개발. 아시아교육연구 10(4), 85-104.
- 윤현영, 강진구 (2005). 대전지역 가출청소년 밀집지역 및 건강실태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민주 (2002). 가족관계 및 가족갈등이 청소년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교 (2006).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청소년쉼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
- 이춘화, 조아미 (2005). 청소년 성매매 사례의 분석을 통한 상습화 예방 및 치료 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7(1), 87-110.
- 이현지 (2005). 가출청소년 재 가출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2(3), 283-304.
- 임순선, 한상철(2011). 휴대폰을 사용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생활 모니터링과 부모 역할효능감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7.
- 전귀연, 배문조 (2001). 가출행동 빈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특성비교. 한국가족복지학 6(1), 107-125.
- 전신현, 김원경, 황성현 (2010). 청소년 가출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접근 : 손베리 이론의 부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1(4), 31-50.
- 정혜경, 안옥희 (2001).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7(4), 483-493.
- 조윤주, 강란혜 (2010).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아동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행친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8), 177-196.
- 조학래 (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행정논집, 31, 172-198.
- 주동범, 임성택 (2009).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이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51-72.
- 한상철 (2010).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완충효과 분석. 미래 청소년학회지, 7(1), 125-149.
- 현은민 (2000). 청소년의 가출: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2), 41-55.
- 홍세희, 김동기 (2007).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 가출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아동학회지, 28(2), 217-233.
- Arulananandam, S. J. (1980). *Runaway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parental behavior and environment*. 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Andres-Lemay, V. J., Jamieson, E., & MacMillan, H. L. (2005). Child Abuse, Psychiatric Disorder and Running Away in a Community Sample of Women.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0(11), 684-689.
- Branstertter. (2005). *Parent-adolescent attachment, relationship qualities and monitoring: The influence on substance use and consequ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Dekel, R., Peled, E. & Spiro, S. E. (2003). Shelters for houseless youth: a follow-up

-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6(2), 201-212.
- Hartos, J. L., & Power, T. G. (2000). Association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reports for assessing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4), 441-450.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67-175.
- Kurtz, P. D., Kurtz, G. L., & Jarvis, S. V. (1991). Problems of maltreated runaway youth. *Adolescence*, 26(1), 543-555.
- Matchinda, B. (1999). The impact of home background on the decision of children to runaway : the case of Yaounde city street children in Cameroon. *Child Abuse & Neglect*, 23(3), 245-255.
- Moore, K. A., Guzman, D. L., Hair, E., Lippman, L. & Garrett, S. (2004). Parent-teen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far more positive than not. *2004 Child Trends Research Brief, USA*. Retrieved from <http://www.childtrends.org>.
- Rice, F. P. (1999).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9ed.)* Allyn and Bacon.
- Roberts, A. R. (1987). Stress and coping patterns among adolescent runaways. *Journal of Social Research*, 5, 15-17.
- Thaxton, S., & Agnew, R. (2004). The non-linear effects of parental and teacher attachment on delinquency: Disentangling strain from social control explanations. *Justice Quarterly*, 21(4), 763-791.
- Welsh, L. A., Archambaut, F. X., Janus, M. D., & Brown, S. W. (1995). *Runnig for their lives*. N.Y.: Garland Publishing. Inc.
- Wolk, S. & Brandon, J. (1977). Runaway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s and self. *Adolescence*, 12, 175-188.

Parental Experience of Youth Runaway

Song, Mi Kyoung

Park, Hyun Jin

Kim, Eun Young

Seoul Woman's University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parents experience on their youths' running away. Runaway youths' parents are undergoing stressful process after their youths' running away. Nonetheless, the parents put various efforts on their youths' returning home. The parental experiences were parental responses to runaway incidents, efforts for their youths' returning home, responses to returning home, and prevention efforts for the repetitive runaways.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 was conducted of 11 parents who are having counseling sessions and ones who had terminated.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medium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classified into 7 domains: relationship before runaway, youths' pre-runaway attitude, reason for running away, responses to runaway incident, efforts on their youths' returning home, responses to returning home, and prevention efforts for repetitive runaways. This study has implication for the need of prevention for the youths' repetitive runaway, offering the data reflecting various aspects of parental experience of youth runaway incident.

Key words: runaway youth, parents of runaway youth, qualitative research, CQR

[부록]

영역	범주(빈도)	내용
가출직전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야단을 치거나 때림(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행동에 대해 엄청 야단을 많이 칩 • 혼을 냄 • 너 죽고 나죽자며 싸움 • 아이에게 야단을 많이 치고 때림 • 남편이 엄하고 늦게 들어오면 혼남 • 남편이 야단을 많이 치고 욕을 하면서 아이를 때림 • 나쁜 짓을 하면 야단을 칩 • 잘못하면 손바닥때리고 체벌을 함 • 협박도 하고 남편이 때려기도 함
	자녀에게 잔소리나 지시하는 말을 많이 함(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하라고 으박지르고 한 이야기를 계속 함 • 항상 들어오는 시간 체크하고 하지마라는 말을 많이 함 • 나쁜 짓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함 • 아이에게 쓴소리만 함 • 아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함 •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함 • 대화를 하다보면 항상 일방적으로 부모만 이야기 함
	자녀와 특별한 문제없이 지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안하지만 별일 없었음 • 아이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사이좋게 잘 지냄 • 특별히 나쁜 일은 없었음 • 키우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못함
	자녀와 대화가 없고 무관심함(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친구 전화번호를 모름 •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잘 모름 • 자녀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름 •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름 • 자녀와 대화가 없음
가출 직전의 자녀의 모습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교칙을 어김(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잘 빼먹음 • 지각이 잦고 수업 땡땡이를 치고 흡연하다 걸림 • 학교를 가지 않음 • 학교까지 데려다줬는데 선생님이 학교를 오지 않았다고 전화 함 • 학교는 무조건 가라고 해도 안됨 • 학교에서 말썽을 피움 • 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그냥 바깥으로 배회 함 • 학교 오지 않은 날이 너무 많아 자퇴처리 됨
	노는 친구와 어울리고 귀가시간이 늦음(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했던 친구들을 만남 • 노는 날라리들과 어울림 • 애들하고 지방을 가서 3일만 놀고 오겠다고 나감 • 조금만 잘해줘도 애들에게 빠짐 • 가출경험이 많은 애들과 어울림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영역	범주(빈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다보니까 10시가 넘고 11시가 넘음 • 학교를 끝나고 늦게 애들하고 놀 • 인터넷 접속하면서 노는 친구를 사귀 • 연락 없이 외박을 함 • 허락도 없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옴 • 밤에는 놀러가고 밤새 자지 않음
	비행을 함(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3부터 담배피우기 시작했고, 화장도 무지 편하게 하고 다님 • 친구들 돈을 가방에서 훔침 • 사건사고가 터져 학생과에 부모가 감 • 이사 와서부터는 애가 절도를 함 • 엄마카드에 손을 댐 • 지갑에서 돈을 가져감 • 늦게까지 노래방, PC방, 당구장을 다님
	공부, 진로에 대해 압박을 받음(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선택에서 갈피를 못 잡음 • 딸이 공부를 잘 하지 않음 •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힘들 • 공부하기 싫어함 • 공부를 하지 않고 점점 엇나감 • 학년이 올라가니 공부를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음 • 공부를 해야되지 않을까 부모가 이야기함 • 공부를 딱 정도껏만 함 • 공부를 못함 • 학원 출석 여부를 부모가 매일 전화로 체크함
	말이 없고 걱정이 많음(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가 별로 표현을 하지 않음 •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함 • 걱정이 많고 소심함 • 약간 말이 없어짐 • 속 이야기를 하지 않음
	거짓말을 하고 행동이 과격함(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말을 함 • 부모에게 말대꾸함 •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부모에게 욕을 함 • 산만하고 충동적임 • 친구를 괴롭혀 상대방부모에게서 전화 받음 • 부모에게 거짓말은 하지말라고 했는데 어김 • 겁이 없는 행동을 함
	친구관계의 어려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렸을 때 애들하고 잘 섞이질 못함 • 친구를 어려서부터 사귀지 못함 • 어울리던 애들이랑 트러블이 생겨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 당함 • 친구들을 괴롭힘

영역	범주(빈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간 욱하는 성격으로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생김 •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함 • 2학년 선배들한테 물품갈취를 당함
자녀 가출 이유	부모를 무서워하고 반항을 함(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 미워한다고 원망이 많음 • 부모가 많이 혼을 내니 싫어함 • 부모의 이혼으로 반감이 생김 • 아빠가 많이 혼내니까 아빠에 대한 반감이 있음 • 늦게 들어와서 아빠에게 혼날까봐 무서워함 • 부족한 것 모르고 사니까 반항함 •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자신은 왜 없냐고 반항을 함
	친구들과 놀고 싶음(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어울리다 노는 것에 빠짐 • 노는 재미에 빠짐 • 친구 맺기를 통해 만나서 친구들에게 빠짐 • 친구들과 자고 싶어 함 • 친구들과 노는 세계가 너무 재미있음
	공부하기 싫고 학교가 싫음(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 쓰는데 가지 싫다고 나감 • 학교 다니기 싫고 무조건 나가기 싫음 • 학교를 가지 않음 • 학교에 적응을 못함 • 시험 때 되면 시험치기 싫어 학교를 안감 •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안 좋음 • 학교에 소문이 나서 학교를 가기 싫어함
	부모가 알아차리기 전에 습관적으로 나감(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가출하자고 해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 잘 있다가 그냥 나가버림 • 언제 나가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함 •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가고 반복됨 • 왜 나가나는 전혀 모르겠음
자녀가출 후 부모의 반응	가출한 원인을 생각해 봄(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함 • 부모는 열심히 살았고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그랬나 생각함 • 나간 것에 대해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많이 함 • 애가 왜 나갔을까 생각해 봄 • 아이가 나름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함 • 뭐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함 • 아이가 왜 이럴까 생각함
	나쁜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함(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함 • 아이가 생리를 언제 했는지 생각해 봄 • 돈이 떨어지면 나쁜 짓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함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영역	범주(빈도)	내용
	참고 기다려보자고 생각함(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을 다 쓰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함 • 참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함 • 정신차릴 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함 • 가출신고 내고 집에서 기다림 •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기로 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함(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었음 • 그냥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차라리 이럴 바엔 죽자고 생각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동안은 아무 것도 못함 •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음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름 • 어떻게 해야되나 싶음
	놀람, 걱정, 불안(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게 놀람 • 가슴이 철렁함 • 걱정이 됨 • 깜짝 놀람 •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불안 • 애를 못찾을까 걱정함 • 속으로 걱정이 됨 •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이 됨 • 연락을 하지 않아 걱정이 됨
	분하고 화가 남(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도 못했는데 분함 • 남편이 화가 많이 남 •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가버려 화가 남 • 짜증과 화를 냄 • 아이의 가출에 화가 남 • 아이에게 화를 냄 • 아이에 대해 화가 남 • 어떻게 가출을 하려고 했는지 화가 남
	답답함, 막막함, 앞이 캄캄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황스럽고 아무생각도 안남 •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함 • 앞이 캄캄함 • 답답해서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 • 답답함 • 이런 생활이 답답함 • 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함 • 속상하고 답답함 •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함 • 뭘 하나 답답함

영역	범주(빈도)	내용
	자책과 회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어야하는데 자책을 함 • 왜 그렇게 애한테 집착했는지 후회가 됨 • 부모가 잘못 키운 것 같아 후회됨 • 아이에게 미안함 • 부모 만나서 이게 될 고생인가 싶고, 스스로 자책함 • 내가 키우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나 미안한 마음이 큼 • 아이에게 미안함 • 미안하고 죄책감이 생김
	미움과 배신감(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가 너무 미움 • 짐을 싸서 나간 걸 보고 배신감이 듦 • 밋고 싫음 • 성질 같아서 죽이고 싶음 • 배신감과 실망감이 듦 • 배신감에 미움 • 미운 마음이 듦
	병이 남(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정신과를 감 • 소화가 안됨 • 우울증이 옴 • 속병을 앓음 • 몸이 아픔
자녀 복귀를 위한 부모의 노력	직접 찾으러 다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이 나간 아이 엄마를 따라 다님 • 동네 피씨방이랑 있을 만한 곳 다 찾음 • 아이를 찾으러 다님 • 일대 민박집을 두드리면서 찾아다님 • 저녁에 일을 끝내고 아이를 찾으러 다님
	휴대폰 위치 추적, 교통카드 검색(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위치추적 같은 것 알아봄 • 교통카드 상황을 살핌 • 핸드폰 위치추적을 시도함 •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함
	친구들에게 연락(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이 놀던 애들한테 전화해 봄 • 같이 놀던 애들에게 연락하여 연락이 옴 • 아이 친구들에게 모두 연락함 • 친구들에게 연락해 봄 • 아이 친구들에게 전화해 함
	가출 신고(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중에 가출신고를 함 • 가출 신고를 함 •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함 •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함 • 가출 신고를 함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영역	범주(빈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에 신고를 함 • 경찰에도 신고하고 가출신고도 함 • 파출소에 신고함 • 저녁에 신고를 함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함(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 있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함 • 공부방선생님이 도움을 줌 •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음 • 학교 선생님하고는 지속적으로 통화를 함 • 담임선생님이 연락을 줌 • 담임선생님이랑 통화도 하고 학교도 찾아 감 • 동반자선생님의 도움을 받음 • 학교선생님의 도움이 큼
	자녀에게 문자 등 계속 연락을 함(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로 문자 남기고 음성을 남김 • 싸이월드 가입을 해서 일촌신청을 함 • 싸이월에 들어가서 뒤져 봄 • 아이를 달래는 문자를 보냄 • 계속 문자하고 전화 함 • 도와준다는 문자를 보냄 • 편지형식으로 문자를 보냄
	들어오라고 자녀를 달램(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오라고 이야기 함 • 아무 말 안할 테니까 들어오라고 살살 달램 • 꼭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함 • 꼬셔서 들어오게 함
자녀복귀 후 부모의 반응	마음을 다스리고 반성함(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을 다스려서 애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함 •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애가 돌아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함 • 기다려 줌 • 문제없이 온 것만으로도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함 • 일단 감정을 누르고 이야기함 • 매를 안 때리고 참아 봄 • 감정 추스르고 아이에 대해 느껴보려고 함
	말을 야끼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 줌(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아무말 하지 말고 놔둬 •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참음 • 말을 아낌 • 그냥 둬 •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하라고 함 • 답답할까봐 놀러 보내줌 • 웬만하면 말을 안하고. 그냥 자기 하던대로 놔둬 •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내버려 둬

영역	범주(빈도)	내용
	안심이 되고 고마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불 덮어주고 나오면 안심이 됨 • 아이가 들어와야지 안심이 됨 • 안심이 됨(부모6) • 집에 들어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움
	화가 나고 때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단치고, 욕도 하고, 패기도 함 • 남편이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함 • 애가 아빠한테 맞음 •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 화를 냄
	나가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 훈계하거나 달랠(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단을 치다가 그러지 말라고 달랠 • 나가지만 말아 달라고 함(부모4) • 가급적 같이 사귀지 말고 다니지 말라고 함 • 아빠가 아무리 나가라고 하더라도 나가지 말라고 함 • 친구를 항상 조심해서 잘 사귀라고 이야기 함 • 나가지 말라고 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함 • 꾸중하면서 친구 집에서 자지 말라고 함 • 빨리 들어오라고 달랠
	학교를 다니라고 함(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학교 갈 것을 이야기함 • 고등학교는 가야한다고 이야기 함 • 학교를 가야한다고 이야기 함
	자녀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에 데리고 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날 눈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다님 • 지금 병원 약을 먹고 있음 • 혹시 병이 났나 싶어 정신과를 데리고 감
	자녀 재가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	감정절제와 마음 다스리기(8)
자녀의 욕구 고려(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 둠 • 애 하는 대로 따라감(부모2) • 아이를 잘 받아 줌 • 생활이 아이위주로 돌아감 • 아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함 • 명령이 아니고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 해 줌 • 아이가 편할 수 있도록 해 줌 • 가출한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어해서 숙식을 해결해 줌

가출청소년 부모의 자녀 가출에 대한 경험

영역	범주(빈도)	내용
	<p>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려는 노력(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전화하려고 하고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관심가지려고 함 • 아이 관심사를 물어봄 • 관심을 주고, 가슴에 와 닿는 말을 문자로 보냄 • 최대한 편안하게 자주 안아주고 스킨십을 함 • 집에서 먹고싶다는 요리를 아빠가 다해 줌 • 간단하게 메모지에 학교 잘 다녀오라고 써 놓음
	<p>대화 방법이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한테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함 • 애들이 표현하는 어투를 씬 •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함 • 가급적이면 상스러운 말을 안하려고 함 • 항상 옆에서 엄마를 부르면 대답을 해주려고 함 • 아이를 인정 해주고 칭찬할건 칭찬도 해 줌 • 지금은 말투가 아이(I) 메시지로 바뀜 • 아이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 하는 것을 보고 예전 같은 생각은 안함 • 엄마 사랑해 편지를 써 놓은 걸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었음 •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 함
	<p>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행동(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장난치고 함께 뭔가를 하려고 노력함 • 부산에 할아버지 있어서 둘이 같이 감 • 봉사활동을 같이 다님 • 바둑을 같이 둬
	<p>도움을 활용 함(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선생님이 이야기 해 주면 희망이 생김 • 동생의 협조를 구하고 공부방선생님의 도움을 받음 • 상담을 지속적으로 함 • 상담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아보게 함 • 쉼터선생님이 도움을 줌 • 동반자선생님과 상담함 • 교우 관계도 좋고, 선생님들하고도 사이가 좋음
	<p>자녀의 시간을 관리(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떨어져 있을 때 일상생활 관리 함 • 학원시간을 칼같이 지키려고 함 • 아이 일어나는 시간을 체크함 • 노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도록 교육 함 • 귀가시간에 대해 교육 함
	<p>믿어주기(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믿어보기로 함 •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함 • 안 나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믿어보려고 함 • 아이를 믿어보려고 애씀 • 믿어주고, 기다려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음

